



해외의 유능한 기업가들에게 스타트업 비자를 제공하는 20개 나라들

H-1B 비자이후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 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비자로, '전문직 취업비자' 2020년초 온라인신청가)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해야 할 요소로, 올해 11 월 21 일부터 EB-5 미국투자이민 최소액이 기존의 50만 (저고용 TEA지역 한정)에서 90만 달러로 상향조정되어 (기타지역은 기존의 일백만에서 1.8백만달러로 상향),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문턱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해외이민을 희망하는 가족들은 EB-5 비자의 상향조정에 따라, 10만 달러 투자액으로 가능한 미국의 E-2 프로그램과 같은 역량을 기업가 / 스타트업 비자 유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시민권/영주권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법제도들이 최근 수년사이에 새로 시행되었다. 2015년부터 실행된 FATCA(1만달러 이상 해외과 신고의무) 이외에도 글로벌 연간 소득신고의무가 시행되면서 미국시민권/그린카드 소유자들에게 빨간불이 켜졌으며, 이에 따라 수년간 노력하여 취득한 미국 시민권/그린카드마저 포기하는 사람들

이 줄을 잇기 시작하였다. 7년전부터 미국 국적포기자가 매년 두배씩, 최근엔 3 배씩 늘어나고 있으며, 수년후면 수(십)만 명의 시민권/그린카드 포기자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자녀교육이나 가족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미국에 굳이 이민할 필요없이 비거주 혹은 매년 거주증을 갱신하며 비이민자격인 E-2 스타트업 창업으로 왕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매우 높은 투자금액과 까다로워진 미국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3-4 개월이면 가족을 동반하여 손쉽게 정착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유럽의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거주자가 자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환영한다. 각국 정부가 해외의 유능한 기업가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로,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스타트업 제도의 목표는 자국의 사회경제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유능한 해외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큰손들인,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irBnB, Baidu, Alibaba 및 Tencent들이며, 유럽의 4 대 허브 (런던, 베를린, 파리 및 스톡홀름)의 벤처 캐피탈 거래는 지난 5 년간 매년 22 % 증가해 왔다. Financial Times보고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 3 개였던 실적과 비교하여 지난 10 년 동안 유럽에서 50 개 이상의 벤처 기반 유니콘이 만들어졌다. 유럽에는 기술인재, 훌륭한 대학 및 연구 센터가 있다. 2018 년 EU 투자 벤처자본 약 230억 달러는 미국의 1,300억 달러투자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유럽에는 자본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벤처 회사가 없다.

현재 브뤼셀은 가치있는 기술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천억 유로의 기금을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기금에는 EU의 기존 벤처캐피탈 및 R & D 보조금 예산이 포함된다. 항상 지원자금을 필요로 하며, 세계의 많은 정부가 최근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기업가/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스타트업 비자는 일부 국가에서 조건부 거주허가를 제공하며, 추후 영주권을 찾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있는 기업가들을 선호한다. 외국 기업가들은 종종 사업체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법적, 문화적 장애에 직면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는 것은 언어,문화, 사회시스템,법률,노동-체재허가등 초기 적용에 부담스러운 새로운 나라에 초기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외국인 창업비자를 위해 제도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여 일부 새로운 이민규칙들을 시행하여 유망사업의 외국 창업자들을 유치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포르투갈,싱가포르, 칠레, 아일랜드, 독일, 영국 및 기타 유럽 수도에서 역량은 외국인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비자 신청, 이전,가족동반이민 및 사업확장을 할 수 있는 20개국을 소개한다. 각국정부의 상세한 스타트업 조건들은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과 각국정부가 지정한 기관,인큐베이터,(혹은 공증인)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장기비자를 취득하는데는 최소 2개월이 (최대 9개월) 소요된다.

여기서는 프로그램과 유치국가들을 비교하고 특정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지침을 제공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필수구비 사항은 사업계획서가 비즈니스의 본질과 실제 비즈니스 계획이 각국 경쟁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사업타당성을 문서화하는 포괄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통한 자본투자다. (혹은 각국지원자금 이용)

1. 영국 50,000 파운드 - BREXIT 예상 불가한 기회의 땅 UK

브렉시트 여파를 감안하여 기존의 최저 20만 파운드 스타트업 투자금액에서 5만 파운드로 3년 거주증을 허가하는 새로운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는 기존의 Tier-1 investor 투자이민 정책방향을 올 3월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발표했다. 이런 변경조치는 기존의 20만 파운드 투자 이민자들의 과거 10년간 사업실태조사를 해보니 이중 13%만이 현재 회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뿐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약소하다고 평가된데서 출발한다. 곧 소자본으로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을 유치한 캐나다 스타트이민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하여 브렉시트로 이탈하는 많은 기업가를 대신하여 또다른 수많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영국을 자주 왕래하는 움서버의 눈에는 런던 도심지는 물론 외곽지대가 활발한 공사판으로, 올해 연간 해외투자유치금 실적을 보면 독일, 프랑스 양나라에 투자한 해외투자금액보다 영국 한나라가 더 많아서 브렉시트에 따른 불안이외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회의 섬나라에 기대치는 높기만 하다. 브렉시트이후 영국 시민권의 비자프리 인덱스는 내려가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또다른 기회의 섬나라가 될 수도 있으며, 한국정부는 영국과 최근 FTA 무관세 협정을 체결했다.

* 새로운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유럽권 (EEA) / 스위스 이외 지역의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으로 영어 지식, 50,000 파운드 이상의 투자 자본금 유용, 사업 계획이 포함된다.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방문여행 3개월 전이다. 비자는 최대 3년 4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영국에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인큐베이터 기반의 IT스타트업 첫비자가 초기 2-3년 체재로 용이하며, 이노베이터 비자로 추후 스위치하여 5년 장기 체류를 받을 수 있다. Fintech, 바이오산업, 메디칼 분야 이노베이터 진출이 용이하며, 전문분야 학력, 진출지역, 섹터 및 지역기여도에 적합한 플랜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노하우가 없어도 노인복지, 요양 서비스 자영업등이 안전한 진출통로가 될 수 있다. 거주지역 신청에 노인복지 서비스업을 신고하면, 신청이 일거리를 제공, 정부의 노인복지금을 지불하게 되어 창업부터 안정적인 정착과 서류전형 및 거주 증연장이 수월하다. 또한 이미 승인된 피자집 체인, 서비스 프랜차이즈업, 비즈니스 센터등 소자본의 창의적인 창업투자로 많은 중동, 인도,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UK진출 문턱이 한결 낮아졌다. 또한 브렉시트이후 영국의 장

기거주증과 한국여권이면 유럽 어느나라든 비자프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더우기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은 새로운 스타트업 비자로 스위치하여 장기정착,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서 브렉시트는 외국인 젊은이들에게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준다.

2019년 11월 새로운 <전문가 인증> 요구 사항 : 신청자는 제안된 사업이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확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영국 정부가 승인한 지정보증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무제한 거주자격유지 (결산). 홈 오피스의 새로운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이노베이터는 절차에 따라 기존 5년에서 3년 후 영주권을 합의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에 최소 GBP 50,000 투자;
-비즈니스 고객의 배가;
-지적재산 신청 연구 및 개발 활동후 보호;
-GBP 1백만의 연간 총수익 창출;
-상주 근로자를 위한 10개의 풀타임 일자리 창출.

UK 기준 Tier-1 투자가.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가). 기존 기업가들은 현재의 규칙에 따라 2023년 4월 5일까지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에서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기업가가 정산할 수 있는 기회는 2025년 4월 5일까지 계속 열려 있다.

2. 독일

Entrepreneur Visa "기업가들은 기업운영 경험과 성공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 계획과 자금개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본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타트업을 통한 독일의 가족정착에는 최소 25만 유로의 자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게 사실이다. 자영업 형태의 프리랜서는 외국인들의 가족정착에 매우 유리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독일 프리랜서 "Freiberufler" Visa 프리랜서는 합자회사등 기존 유형에 비해 더욱 많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방식의 관료주의 제도를 줄임중에 따라 자영업 유형의 창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반에서 활동하려는 직업은 자유직 "Freiberufler"으로 인정되며 프리랜서 "Freiberufler"가 될 수 있다. 직업 신청을 상업으로 등록신청하면 비즈니스 맨 "Gewerbe" 자격만 가능하다. 블루카드 (연간소득 53,600 EUR) 자격으로 영주권을 얻는데는 2년이면 가능한 독일 영주권 프로세스는 유럽에서 가장 신속한 절차이며, 더우기 MINT 직업군 (mathematics / information technology / natural sciences / technology) 혹은 의사직은 연간 41,808 EUR 수입으로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서, 유럽 제1의 경제대국, 교육, 의료, 사회보장, 신속-정확한 사회시스템 등 종합적으로 가족의 미래설계에는 유럽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으며, 자영업을 통한 프리랜서 진출을 권장할 만 하다.

3. 싱가포르

지원자는 회사 설립전 또는 회사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ntrePass를 신청해야 한다 (최대 2년). 6개월 후 기업가

는 대신 고용패스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개인 유한 회사 설립을 등록, 회사 주식 자본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응시자는 기업가, 이노베이터 또는 투자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덴마크

Startup-Denmark 비자는 Danish Business Authority가 임명한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서와 동반가족이 없는 경우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한 충분한 자금증명 (+137.076 DKK)과 사업체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5. 스웨덴

자영업자로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지원자가 해당전문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경험과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지식을 보유하며 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이 스웨덴에서 판매 또는 생산되고 있음을 스웨덴어 또는 영어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초기 2년 동안은 본인과 동반 가족을 지원할 충분한 생활비 능력을 보여야 한다. 본인의 경우 20만 SEK (19,500€), 배우자는 SEK 100,000 (10,000€) 및 동반자녀 일인당 SEK 50,000 (€ 5,000)와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신뢰할 만한 출처증명이 필요하다.

6. 일본 www.Onomad.club

7. 아일랜드

Startup Entrepreneur Program은 € 75,000 투자금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는 이민자프로그램이다. 인큐베이터에 기초한 스타트업 비자는 초기 투자금액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일랜드에서 10개의 일자리를 창출, 3-4년 내에 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력과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통제, 최소 6년 운영해야 하며 R & D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8. 뉴질랜드 9. 호주 www.Onomad.club

10. 핀란드

Entrepreneur's Residence Permit. 기업가의 거주허가. 신청자는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의 무역 등록부에 사업체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최대 2년 유효한 거주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할 수 있다. 거주허가는 투자나 재정지원과 관련이 없다. 신청자가 스타트업 기업가로 핀란드에 오려는 경우 Entrepreneur's Residence Permit 거주 허가를 신청한다. 거주허가는 신청하기 전에 Business Finland 관청으로부터 긍정적인 자격진술이 없으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1. 칠레

남미 스타트업 진출의 허브 Startup-Chile acceleration program 가속화 프로그램은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1년 근로비자와 함께 무료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최소요건은 신생기업이 기능적인 제품과 조기검증된 프로젝트에 100% 전념하는 기초팀을 보유한 3년이 지나지

12. 이탈리아

1년 유효의 스타트업 비자 신청은 이탈리아 경제 개발위원회에 다이렉트 온라인 서류접수가 필요할 뿐이다. 비자는 직접 스타트업 비자 신청 또는 라이선스 인큐베이터를 통한 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 여권사본, 재정출처 및 56,000 달러 상당의 자금증명서 구비가 필요하다. 초기 1년 허가는 만료시점에 2년 연장허가로 갱신할 수 있다.

13. 프랑스

높은 세금부담의 나라, 프랑스 창업투자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녀 교육 및 노후등을 고려하여 가족의구체적인 미래계획과 종합적인 이해를 한다면 남유럽의 골든비자라 일컫는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말타, 사이프러스의 부동산 취득을 통한 5년 유효 패미리 체류허가보다 (말타, 사이프러스는 영주권) 유익한 점들이 많아 경쟁력있는 프렌치 골든비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 남유럽은 경제가 부실한데다 소유부동산의 투자금회수가 5-10년 이후 쉽지않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가능한 경우 French Tech Visa 또는 Talent Passport Visa (2016년 3월 시행) 프로그램 둘다 30만유로 투자금으로 4년 유효한 패미리 체류허가이며, 학사학위나 볼어 언어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Talent Passport는 투자금을 회수 다른회사, 업체, 개인사업에 재투자도 가능하며, 4년후 1회 연장 4년유효갱신되며 직계가족 모두 무료연장되어 자녀교육, 사회보험 혜택을 현지인들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회사나 스타트업을 설립하든, 다국적 회사의 이사이든 관계없이 사업투자자로 Talent Passport를 신청할 수 있다.

French Tech Visa는 프랑스기반 창업을 하는 국제 스타트업 창립자, French Tech회사 직원 (프랑스 기업을 위한 국제 인재채용을 목표로 함)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로 French Tech비자 구비서류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 최저 임금, 18,254.60€ 과 동일한 수입원
- French Tech Visa 파트너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중 1인 (혹은 다수)에게 정규적으로 선발되거나.
- 각 인큐베이터는 스타트업을 1년 기간 혹은 프로젝트당 요청 및 프로모션등 다

르게 선택하며

• French Tech비자가 출시되기 이전에 파트너 인큐베이터에 신청한 국제 스타트업 기업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French Tech 비자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경우). French Tech비자중 한개 혹은 다수 신청. * 이외에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프랑스내에 개인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서를 갖춰 프랑스 상공회의소에 창업회사 (자본금 EUR +30,000) 설립으로 1년 유효의 단기 거주허가를 신청하여 매년 갱신할 수도 있다.

(* 온새미 노마드 2020년 1월호 : 프랑스 영주권 안내 참고)

14. 태국 15. 캐나다 www.Onomad.club

16. 포르투갈

2006년 재정난이후 시행한 골든비자 (부동산 취득자에게 주는 5년 장기레지던스) 정부정책이 성공하여 경기회복세를 찾은후 새로이 투자금을 요구하지 않는 Startup Visa 를 2018년 3월 시행한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체류 비자로 지능 캐피탈 유치를 통해 재능 및 혁신을 가져올 기업가들을 목표로 한다. 이미 기업가 경험을 하지않은 인재들 혹은 이미 타국에서 창업한 회사이나 포르투갈에 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유럽권이외의 외국인들은 지원할수 있다. 연간 1인당 5146.08€ 잔고와 기술분야에서 잠재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창업계획이 필요하다. (선택한 인큐베이터와 계약한 후 5년이내에 연간 매출325,000€와 (혹은) 연간 자산가치 325,000€ 가능한 사업).

국제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인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부여에도 적극적이다. 단, 포르투갈에서 주거하며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창출에 전념해야 한다. 지중해의 태양빛아래 서핑과 남유럽 생활을 좋아하는 기업가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상속세, 글로벌 소득세, 은퇴연금제도 없어서 매력적인 나라이다. 6년만에 까르푸르 Sushi Daily 유럽체인 1000여개 성공한 Kelly Choi는 최근 리스본에 한식당 프랜차이즈를 위한 1호점을 열었다.

<https://startupportugal.com/startup-visa/>

17. 네덜란드

프리랜서 및 기업가 유경험자 위한 네덜란드 자영업비자로 네덜란드에 사업체 설립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네덜란드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특정 조건이 있다, 특히 비즈니스 활동이 네덜란

드 경제부 산하 네덜란드 기업 청 (RVO) 의 포인트 시스템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의 개인경험,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이 네덜란드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영역에서 포인트를 부여하여 심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비즈니스 협력파트너의 추천서로 포인트기반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

18. 스페인

비 EU 국가의 시민자격으로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사업을 하려면 S.A. 또는 S.L.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며 초기 2년간은 기업가의 연간세율이 15%로 적용된다.

- 사회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계획으로 국가를 위한 고용창출
- 특허권 등록이나, 특허권의 취득기회를 높여주는 기존고객들의 추천서
- 동반가족의 생활자금 (신청자 2.130€, 가족1인당 532€)

19. 벨기에

유럽국회가 있는 벨기에는 “Investor Visa”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골든비자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해당국가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다른 유럽멤버국가의 나라에서 체류 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개인사업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인이름이 기재된 LLC 유한회사의 사업계획서 (12,400 €)로 공증인의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은행구좌를 오픈할수 있다. 비거주자는 벨지움내 회사주소가 필요할 뿐이다.

투자자의 출신국에 무관하며 패스포트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어, 독일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된 조례를 작성, 공증인의 서명으로 신속히 등록된다. 사업 계획서에는 회사의 2년이상 예산운영 및 판매할 상품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초기자본 금액이 왜 사업에 필요한지 향후 3년간 어떻게 자금조달과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5년간 전형적인 투자는 350,000€ 이며, 능력있는 기업가에게 예외적으로 3년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벨지움은 고소득자에게 일정소득세 이상을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프랑스에선 올랑드 대통령당시 초부유세 최대70%의 세금을 피해 LVMH대표나 제라르.데파르듀가 벨지움국경의 작은마을로 Tax Residency를 변경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20. 한국 www.Onomad.club

*Sécuriser
l'Avenir de Famille*

avec résidence alternative et citoyenneté

Global Residence 21 uk & partners